

역대급 무더위에 광주·전남 폭염 피해 ‘속출’

‘폭염경보’ 속 체감온도 35도 넘어
누적 온열질환자 광주·전남 317명
가축 11만마리·어류 27만마리 폐사
시·도, 비상근무·쉼터 운영 등 총력

광주·전남에 연일 폭폭 찌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가축·어류 폐사 및 온열질환자 발생 등 폭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 기준 20일째 ‘폭염경보’를 발효하고 있다. 폭염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날씨가 2일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표한다. 이날 기준 광주 일 최고기온은 35.4℃로, 최고체감온도는 35.8℃다.

이날까지 광주에서는 총 48명(사망 1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장소별로는 작업장(26명·54%), 논밭(6명·13%) 등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의 폭염경보도 지난 6월11일을 시작으로 22개 전 시·군에서 39일간 이어지고 있다.

최고 체감기온은 담양이 35.9℃로 가장 높았으며, 구례 35.6℃, 완도 35.5℃, 화순 35.3℃, 해남 35℃ 등 대부분 35℃를 웃돌았다.

고령층이 많은 지역 특성상 온열질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이날 기준 전남지역 누적 온열질환자는 총 269명(사망 1명)으로, 열사병 56명, 열탈진 157명, 열경련 33명, 열실신 19명, 기타 4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실내외 작업장(116명), 산이나 강가 혹은 길가(106명), 논·밭(47명) 등이었다.

무더위로 인한 가축 및 수산 피해도 잇따랐다.

이날 기준 전남에서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18개 시·군 총 102호로, 폐사한 가축은 총 11만8000마리다. 닭이

10만6361마리로 가장 많았고 오리 9133마리, 돼지 3440마리 등 추정 피해액은 14억9200만원에 달한다.

더위로 인한 고수온에 3개 시·군 3개 어가에서 총 27만8000여 마리의 어류가 폐사해 4억6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해 비상근무 및 쉼터 운영, 홍보 활동 등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광주시는 비상근무자 48명을 배치해 관내 농경지 순찰 및 홍보를 통해 온열질환 예방을 추진하며, 열대야 대비를 위해 쪽방주민지원센터는 오후 6시부터 10시, 경로당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무더위쉼터 야간운영에 나섰다. 살수차 10대를 투입해 총 315km에 달하는 도로 온도를 낮추고 있다.

전남도는 위기경보 판단기준이 ‘심각’ 상황임에 따라 총 489명의 비상근무자를 배치했다.

총 8556개소에 달하는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1252개소, 통합그린쉼터 3개소, 쿨링포그 13개소 등 다양한 온도저감시설도 운영한다.

독거노인이나 거동불편자 등을 위해 재난 도우미 8714명을 투입, 일일 건강관리 및 4개 시·군에 1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예방물품 지원에 나섰다. 살수차 43대 운영 및 건설현장 순찰, 마을방송 및 문자 발송 등 폭염 피해 예방 및 홍보 활동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향후 취약계층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말을 포함해 재난도우미 활용 안부 전화 및 방문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무더위 시간대 집중 순찰 등을 통한 영농인 온열질환 예방에도 나설 계획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역대급 무더위 속에서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도민이 안전하게 더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노병하·오지현 기자



“야구 보면서 물놀이”... KIA ‘핫 서머 페스티벌’

폭염특보 속에 ‘핫 서머 페스티벌’이 열린 지난 9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KIA 홈팬들이 3루 내야 응원석에 설치된 8개의 워터캐논에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물대포를 맞으며 열띤 응원을 펼치고 있다. 물대포는 득점과 안타가 나올때 쏜다. 김영배 기자

광주·전남 태극전사, 지역민들에 희망과 감동 선사했다

2024 파리 올림픽 폐막

양궁 남수현·배드민턴 안세영
배드민턴 정나은 혼합 복식서
유도 이해경 혼성 단체전 동메달
복싱 임애지 여자 선수 첫 시상대

지구촌을 뜨겁게 달궜던 2024 파리 올림픽이 12일(이하 한국시간) 오전 4시 프랑스 생드니의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리는 폐회식을 끝으로 열전을 마무리했다.

한국은 이번 올림픽에서 11일 오후 6시 현재 금메달 13개, 은메달 8개, 동메달 9개를 획득해 종합 순위 8위를 달렸다.

광주·전남 출신 또는 소속 태극전사들은 이번 대회 금메달 2개와 은메달 1개, 동메달 2개 등 다섯 개의 메달을 수확하며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선사했다.

순천성남초-순천풍덕중-순천여고를 나온 남수현(순천시청)은 지난달 29일 오전 프랑스 파리 앵발리드에서 열린 이번 대회 양궁 여자 단체전 결승에서 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광역시청)과 함께 금빛 활시위를 당겼다.

또 남수현은 지난 3일 오전 개인전 결승에서는 임시현에게 3-7로 석패하며 은메달을 추가, 이번 대회 금메달 1개와 은메달 1개의 성적을 거뒀다.

나주에서 태어나 풍암초-광주체중-광주체고를 나온 안세영(삼성생명)은 지난 5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펔에서 열린 배드민턴 여자 단식 결승에서 허빙자오(중국)를 2-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랐다.

배드민턴의 정나은(화순군청)은 은메

달을 수확했다. 김원호(삼성생명)와 호흡을 맞춘 정나은은 지난 2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포르트 드 라 샤펔에서 열린 배드민턴 혼합 복식 결승에서 정쓰웨이-황야총(이상 중국) 조에 0-2로 석패했다.

유도 혼성 단체전은 동메달 결정전에서 독일을 연장 끝에 4-3으로 꺾었다. 대회 엔트리에 포함된 모든 선수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규정상 이해경(광주교통공사)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임애지(화순군청)는 지난 4일 오후 프랑스 파리 아레나 파리 노르에서 열린 복싱 여자 54kg(플라이급) 준결승에서 해티스 아크바스(튀르키예)에게 2-3으로 판정패하며 동메달에 만족해야 했으나 한국 여자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복싱 메달리스트가 됐다.

▶관련기사 14면 한규빈 기자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0명
아카데미 Leadership (포럼 7회)
일정 Friendship (체육 행사 2회)
Patronship (전시 관람 1회)
교육기간 2024.09-2025.05
수강료 330만원(부가세 포함)
문의 전남일보 사업본부
(062)519-0730

세부 일정표

일자 및 회차	강사	분야
2024. 09. 26(목) - 포럼 1강	이광재 제35대 국회 사무처 사무총장	정치
2024. 11. 28(목) - 광주비엔날레 관람 및 만찬		
2024. 12. 12(목) - 포럼 2강	최철 조선대 교수·광주시립오페라단 예술감독	예술
2025. 01. 09(목) - 포럼 3강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경제
2025. 02. 06(목) - 포럼 4강	한재권 한양대학교 교수	로봇 공학
2025. 04. 03(목) - 포럼 5강	이경전 경희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교수	정보(AI)
2025. 05. 08(목) - 포럼 6강	한근태 한스켄셀링 대표, 서울과학대학원 교수	인문
2025. 05. 29(목) - 포럼 7강	박준영 재심 전문 변호사	사회

